

### 3. 한 달에 하루는 한복의 날로

#### 1ヶ月に一日は韓服の日に

<p>서울의 혜화동 사무소가 한 달에 한 번씩 한복을 입고 업무를 본다고 한다. 국내 최초로 한옥 청사를 마련해 화제가 되더니 이번에는 직원들이 그에 걸맞은 옷을 입어 분위기를 한껏 내보려는 것이다. 그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한복은 한식집이나 관광지 기념품점의 종업원 제복 정도였는데 관공서에서 한복을 마주하게 된다면 꽤 즐거울 듯싶다.</p>	<p>ソウルの恵化洞事務所が一月に一度ずつ韓服を着て業務をするという。国内で最初に韓屋庁舎を用意して話題になって、今回は職員がそれに似合った服を着てできるかぎり雰囲気を出してみようとするようだ。これまで日常生活の中で出会う韓服は韓国料理店や観光地の記念品店の従業員制服程度だったけれども官公庁で韓服に合うことになるならば、かなり楽しい気がする。</p>
---	--

혜화동	【惠化洞】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동. (ソウル特別市鍾路区にある町・地域)
한옥	【韓屋】	한국의 전통 집. (韓国の伝統家屋)
청사	【廳舍】	국가 기관의 사무실로 쓰는 건물. (国家機関の事務室で使う建物)
걸맞다	似合う	서로 어울릴 만큼 비슷하다. (互いに似合う程似ている)
한껏	できる限り	할 수 있는 데까지. (できるところまで)
제복	【制服】	학교나 회사 등에서 정해진 대로 입도록 한 옷. (学校や会社などで決まった通り着るようにした服.)

<p>나는 결혼할 때 이름난 한복집에 가서 깃과 끝동에 꽃수가 놓인 진초록 저고리와 다홍치마를 맞추었다. 가끔 그 치마저고리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내 사진이 여러장 담겨 있는 사진첩을 볼 때면 새색시 시절의 추억에 젖는다. 비싼 값에 장만한 그 한복은 웨딩 촬영과 폐백, 그리고 결혼 후 치른 시부모님의 환갑잔치와 시누이 결혼식 때 나를 빛내 주었다.</p> <p>그러나 그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풀어지는 저고리 고름 다시 매려 너풀거리는 치맛자락 잡아 올리랴 애를 먹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리고는 10년 넘게 내 한복은 장롱 안에서 잠자고 있다.</p>	<p>私は結婚する時、有名な韓服店に行って襟と袖先に花模様の刺繍を施した濃い緑色のチョゴリと濃いピンクのチマを誂えた。時々そのチマチョゴリを着てはにかんで笑っている私の写真が何枚か収まっているアルバムを見るときは新婦時代の思い出に浸る。高い値段で準備したその韓服は、ウェディング撮影や贈り物を贈る事、そして結婚後執り行われる義理の両親の還暦の祝いと義理の姉妹の結婚式の時、私を輝かせてくれた。しかしその時毎に時をわきまえず、緩んだチョゴリの紐を再び結ぼうとはためくチマの裾を捉えてあげようと苦労したのがまだ記憶に生々しい。</p> <p>そして10年を超えて私の韓服はタンス中で寝ている。</p>
--	--

깃	(衣服) 襟	저고리나 두루마기에서 목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 (チョゴリや韓国の外套の首を囲んでいる部分)
끝동	チョゴリの袖先に足す色合いの違った布	저고리의 팔 부분에 붙인 다른 색의 천. (チョゴリの腕の部分につけられた他の色の布)
수	【繡】 刺繍	형겉에 색실로 그림이나 글자 등을 바늘로 떠서 놓는 일 또는 그 그림이나 글자. (布切れに糸で絵や文字などを針で浮かび上がらせることまたは、その絵や文字)
진초록	【進草緑】 濃い緑色	진한 초록. (濃い草緑)
다홍치마	【-紅-】 深紅色のチマ	사이가 좁게 (間が狭く)
수줍다	内気だ 恥ずかしがりやだ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어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태도가 있다. (他の人そばで話や行動をする時、はにかんだり恥じる態度がある)

사진첩※	【寫眞帖】アルバム	사진을 붙여 두기 위한, 두꺼운 종이로 만든 책. (写真を貼っておくための、厚い紙で作った冊子)
새색시	新妻	이제 막 결혼한 여자. (今まさに結婚した女)
장만하다	準備する	필요한 것을 사거나 만들어서 갖추다. (必要な物を買ったり作って備える)
폐백	【幣帛】	신부가 처음으로 남편의 부모님을 만날 때 드리는 물건. (新婦が初めて夫のご両親に会う時差し上げる物)
시누이	【媳-】夫の姉妹	남편의 누나나 여동생. (夫の姉や妹)
환갑※	【還甲】還暦	[육십갑자의 갑(甲)으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예순한 살’ 을 이르는 말. ([六十甲子の甲に戻るという意で] ‘六十一才’ を言う言葉)
풀어지다 ※	ほどける	매였거나 묶였거나 얽힌 것이블리게 되다. (結んだり縛られたりからまったのが)解けることになる)
고름	チョゴリやトゥルマギの結び紐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옷깃을 모아지도록 한 끈. (チョゴリやトゥルマギの襟を集めるようにしたひも)
너풀거리다	激しくはためく	얇은 물건이 바람에 날리어 가볍게 자꾸 움직이다. (薄い物が風に飛ばされて軽く度々動く)
치맛자락	チマの裾	치마의 아래로 늘어진 부분. (スカートの下にたれた部分)
애를 먹다	苦勞する	마음이 아주 불편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다. (心がとても不便なくらい困難を経験する)

<p>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단아한 한복 차림의 여인들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었고 동네 골목에는 한복집 간판이 심심찮게 보여었다. 그러나 이제 한복은 평상복이 아니다. 명절이나 결혼식, 환갑 등 집안 잔칫날에만 입거나 TV 사극에서나 구경할 수 있는 옷이 되어 버렸다.</p> <p>하지만 한편에서는 폭이 넓고 긴 치마, 길이가 짧고 고름이 달린 저고리, 가슴 부분을 졸라매야 하는 치마끈 등 한복의 불편한 부분을 개량해 생활 속의 옷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p> <p>이러한 개량한복은 점차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멋쟁이들이 특별하게 멋을 내고 싶을 때 찾는 파티복이 되기로 한다.</p>	<p>わずか数十年前でも、上品な韓服を装う女性たちを道端で簡単に見ることが出来て町の路地では韓国衣裳店の看板を良く見かけた。しかしもう韓服はふだん着でない。名節や結婚式、還暦など家の祝宴の日にだけ着たり、TVの時代劇でも見物できる服になってしまった。</p> <p>だが、一方では幅が広くて長いチマ、長さが短くて紐がぶら下がったチョゴリ、胸の部分を締めて結ばなければならないチマの紐など、韓服の不便な部分を改良して生活の中の服として定着させようという努力が続いてきた。</p> <p>このような改良した韓服は次第に活動しやすい服として定着していきつつあって、おしゃれな人が特別にめかしこむ時に、求めるパーティー服になることになった。</p>
--	--

불과	【不過】わずか	그 수량보다 많지 않음을 이르는 말. (その数量より多くないことを言う言葉)
단아하다	【端雅-】品がある	단정하고 아담하다. (丹誠で上品だ)
심심찮게	よく	자주
사극	【史劇】歴史劇	역사에 있었던 일을 소재로 삼아 만든 드라마. (歴史にあったことを素材として作ったドラマ)
개량하다	【改良-】改良する	더 좋게 고치다. (より良く直す)
정착시키다	【定着-】定着させる	새로운 문화 현상 등이 당연한 것으로 자리잡게 한다. (新しい文化現象などが当然の事として定着するようにすること)
점차※	【漸次】次第に	점점 차차(ますます だんだん)
멋을 내다※	めかしこむ	

<p>옷장 정리를 할 때마다 제 값을 못 하고 묻혀 있는 한복을 보면 그 값으로 차라리 정장을 두 벌 샀더라면 하고 후회를 한다.</p> <p>하지만 꼭 다시 입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서도 그 한복을 구김이 가지 않게 고이 간직하고 있다.</p> <p>유행이 지난 다른 옷들은 버리기도 하고 재활용품으로 내놓기도 하지만 한복은 선뜻 그렇게 되지 않는다.</p> <p>문득 혜화동 사무소 직원이 부럽다. 나 스스로 한 달에 한 번 날을 정해야겠다. 고이 간직해 온 한복을 꺼내 입고 다시 새색시가 된 기분으로 외출하는 날.</p>	<p>衣装だんすを整理をするたびに、その相応の価格にならなくて、埋もれている韓服を見ると、その値でいっそのこと正装を二着買ったならば良かったのにと後悔をする。</p> <p>しかし必ず着る機会があるからと信じていなくてもその韓服のしわができないようにきちんと保管している。</p> <p>流行遅れのほかの洋服は捨てたり、リフォーム用品として売りに出すけれど、韓服はあっさりとはしない。</p> <p>ふと恵化洞事務所職員がうらやましい。 私も自ら一月に一度の日を決めなくちゃ。 そのまま大事に保管してきた韓服を取り出して着て再び新婦になった気持ちで外出する日。</p>
--	--

묻히다※	埋もれる	
구김	しわ	옷 등이 접히거나 눌러 눌러 생긴 자극. (服などが折りたたまれたり押さえられてできた刺激) 놀리다·押さえる 자극【刺戟】…刺激
고이	そのまま 損ねることなく	변하지 않고 그대로. (変わらないでそのまま)
간직하다※	大切にしまっておく	
선뜻	あっさりと さっさと	동작이 빠르고 시원스러운 모양. (動作がはやくてさっぱりしているさま)
문득	ふと はっと	생각이나 느낌 등이 갑자기 떠오르는 모양. (考えや感じなどが突然浮び上がる様子)

<p>김치의 색깔은 다른 야채 음식보다도 아름답다.</p> <p>김치의 주재료가 되는 배추에는 이미 흰색 줄기와 푸른 잎 그리고 노란색 고갱이의 세 가지 색깔이 골고루 갖춰져 있다.</p> <p>이 배추의 색깔이 고춧가루의 붉은 색과 잘 어울려 미감과 식욕을 돋우어 준다.</p> <p>여기에 갖과 석이벗서과 같은 검은색이 더해지면 다섯 색깔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된다.</p> <p>이러한 김치가 발효되면 맛도 한 가지가 아니라 매운 맛, 신맛, 단맛, 그리고 짜고 쓴맛의 다섯 가지 맛을 낸다.</p>	<p>キムチの色は他の野菜の食べ物よりも美しい。</p> <p>キムチの主材料になっている白菜には既に白い茎と緑色の葉、そして黄色い芯の3種類の色が万遍なく揃っている。</p> <p>この白菜の色が、粉唐辛子の赤い色と良く合って味覚と食欲をそそってくれる。</p> <p>ここへカラシナとイワタケのような黒い色が一層濃くして、5色が美しい調和を成すようになる。</p> <p>このようなキムチが発酵すれば、味も1種類でなく辛味、酸味、甘味、そして鹹味(塩味)、苦味の5種類の味を出す。</p>
--	--

이미	すでに とうに	벌써, 이왕에【已往-】, 기위【既爲】
줄기※	茎 筋 山並み	식물의 뼈대가 되는 긴 부분(食物の骨組みになる長い部分)
고갱이	植物の髄 かなめ	풀이나 나무 줄기 중간의 부드러운 부분(草や木の茎の中心部にある柔らかい芯) 깔끔하다·사っぱりしている
골고루※	等しく 均等に	고루고루의 준말(縮約語) 여럿이 모두 고르게(多数が皆等しく)
미감	【味感】味覚	맛에 대한 느낌(味覚 味に関する感じ)
식욕	【食慾】食欲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食べ物を食べたい心)
고춧가루※	粉トウガラシ	고추를 말려서 뿜은 가루(唐辛子を干してひいた粉)
붉다	赤い	빛깔이 핏빛이나 저녁놀 빛과 같다(色が血の色や夕焼けの光と同じだ) 빛깔·色彩 핏빛·血の色 저녁놀·저녁놀의縮約 夕焼け

돋우다	あげる ださせる	많거나 높아지게 하다. (感情・意欲などを刺激して出させる・起こさせる)
비로소※	初めて ようやく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서야) 처음으로(ある事があった後で初めて)
갓	カラシナ・芥菜	채소의 한 종류. 잎과 줄기를 먹는다. (野菜の一種。葉と茎を食べる。)
석이벗서	岩茸 イワタケ	버섯의 한 종류. 검은색이 난다. (キノコの一種類。黒い色が出る。) (縮約)석이
더해지다※	ひどくなる	
조화※	【調和】 調和	대립이나 어긋남이 없이 서로 잘 어울림. 균형이 잘 잡힘. (対立や食い違いがなくて互いによく似合う事。 均衡がよく捉えられている事。)
신맛※	酸味 酸っぱい味	식초의 맛과 같은 새콤한 맛. (酢の味と同じややすっぱい味。)

<p>김치에서 볼 수 있는 다섯 가지 색은 우주를 상징하는 오방색(五方色)과 관련이 깊다.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説)에서 푸른색은 동쪽, 붉은색은 남쪽, 노란색은 중앙, 흰색은 서쪽, 검은색은 북쪽을 상징한다. 김치는 이러한 오행의 다섯 색깔과 다섯 맛을 지니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고유 음식이다. 김치가 한국의 음식을 대표하는 이유는 이렇게 김치의 맛이나 색깔, 형태 속에 한국인 고유의 문화와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p>		<p>キムチに見られる5種類の色は、宇宙を象徴する5方色と関連が深い。陰陽五行説で青い色は東側、赤い色は南側、黄色は中央、白色は西側、黒い色は北側を象徴する。</p> <p>キムチは、このような五行の五色と五味を持っている韓国の代表的な固有の食べ物だ。</p> <p>キムチの味と色、形態の中に韓国人固有の文化と精神が込められているからだという事ができる。</p>
상징※	【象徴】	벌써, 이왕에 【已往-】, 기위 【既爲】
오방색	【五方色】	다섯 방향을 나타내는 색. 동쪽은 파란색, 서쪽은 흰색, 남쪽은 빨간 색, 북쪽은 검은색, 가운데는 노란색.( 五方向を表す色。東側は青色、西側は白色、南側は真っ赤な色、北側は黒い色、真ん中は黄色。)
음양오행설	【陰陽五行説】	세상의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서로 맞서는 두 가지 특징과 다섯 가지 변화로 이야기하는 이론. 북과남, 여자와 남자 등과 같이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특징인 음양과 쇠(금 金), 물(수 水), 나무(목 木), 불(화 火), 흙(토 土)의 다섯 가지 사물로 세상의 모든 현상과 사물의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설명. (世の中の全ての物が生まれて消える事を互いに対立する二種類の特徴と五種類の変化として話す理論。 北と南、女と男などのように互いに反対になる二種類の特徴である陰陽と鉄(금 金)、水(수 水)、木(목 木)、火(화 火)、土(토 土)の五種類の事物として世の中の全ての現象と事物が生じて消えるのを説明。)
지니다※	身につける 持つ	(물건을) 몸에 간직해 가지다. ((物を)体に大事に保管して持つ。)
형태※	【形態】 形態 形	사물의 생긴 모양. (事物のできた形。)